

금주일언 지극히 문맹하고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말한다 어리석으면서 지혜로움을 이기려는 것, 이것을 일컬어, 지극히 어리석다 한다. (법규경·우암동 233월)

東大新聞

발행부수	행인	인쇄기간	출판	식	구
10,000부	주국	10일	최이	순	월
편집	집	장	이	주	성
			익	주	명

퍼낸 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 260-3491~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 770-2057

제 1209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6년(불기2540년) 9월23일 (월요일)

1

교육개혁시리즈

③ 수업제도

본교는 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이고 신입생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학점 취득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아래 상대평가제 도입과 특별시험제 제도개선 등을 시행했다.

상대평가제는 이번 2학기부터 1학년 교과목(교양강좌포함)을 신청한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7월 치러진 특별시험응시자는 총 89명으로 전보다 많은 학생이 참가한 것을 볼때 시험제도 개편에 관련해 학생들의 인식이 점차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상대평가제
10명 미만의 강좌를 제외하고 신교육과정과목수강시 성적을 등급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제도이다. 수강부담이 적거나 학점취득이 용이한 강좌에 학생수가 대거 몰리고 필요한 강좌가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는 등 비정상적인 현상을 줄이고자 시행된 이 제도는 성적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적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A=0~20%, B=20~40%, C=40~40%, D=0~20%, F=무제한 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A학점이 대량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과 F학점은 무제한이라는 점이다.

이는 고학점 중심의 성적평가를 막고 실제 실력과 평가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학점취득이 쉬운 과목에 학생들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2. 특별시험제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특별시험 과목이 국어 작문 등의 교양과목에서 실용영어, 컴퓨터 실습, 영어회화로 바뀌었다.

영어와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 같이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과목은 사전에 기준을 제시해주고 기타과목도 사전에 요구하는 수준을 공시해 준다. 이는 실력이 있는 학생은 자동적으로 그 교과목에서 미리 성적을 인정받아 소요될 시간을 다른 강좌의 수강에 활용할 수 기쁨을 기회를 제공한다.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A+, A의 성적을 받고 불합격한 학생은 학점취득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한상용기자)

국고·교비보조금 20억 배정 적정집행으로 학과발전 균형 꾀해야

국고보조금 1차분과 교비보조금 등 총 20여억원의 지원이 확정된 본교의 교육환경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 예산은 1·2차국고보조금 중 지난 6월에 지급된 1차분 10억원에 교비보조금 10억원이 더해진 것이다. 지난해 시설·설비 확충재정으로 지원된 국고 한해본 10억원과 비교해 불배 교내 시설·설비 확충에 20억원이 책정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학교당국은 이를 통해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이하 대총평)에 대비한 민간의 준비를 갖추게 됐다.

분배가 확정된 예산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회)가 실시되는 11월초까지 집행·완료된다.

전체 예산은 총 20억8천8백22만원으로 서울캠퍼스에 총 13억1천5백97만5천원이, 경주캠퍼스에 총 6억9천2백10만7천원이 배정됐다.

이번 국고·교비보조금은 기자재가 열악한 서울캠퍼스의 공과대, 이과

대, 예술대등과 경주캠퍼스의 자연대 등에 주로 지원되며, 서울캠퍼스 △자거노력지원 및 시설·설비지원=9억9천1백10만2천원 △도서관 및 도서관전산화=3억2천4백87만3천원 △경주캠퍼스 △자거노력지원 및 시설·설비지원=4억6천73만4천원 △도서관 및 도서관전산화=2억3천1백37만3천원에 각각 사용된다.

그러나 20억원확보의 풍요속에서도 예산이 증분한 사전조사없이 일방적으로 책정된 점과 자연계열에만 집중투자된 점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다.

우선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관련하여 예산조정과는 "구체과를 통해 학과장의 실습기자재 신청을 받아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주장했으나 구내과에서는 "우리는 예산의 배정과 신청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목이 예산을 책정받은 부서조차도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다. 한 예로 도서관 및 도서관전산화비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는 3억2천4백87만3천원이 배정됐으나, 도서관사서과 담당자는 "이번 책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 다만 1학기초 4억원의 예산을 받은 것뿐이며 이것또한 넉넉치 않은 액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 예산이 대총평을 대비해 이·공계열에만 집중 투자돼 예산분배 형평성에 어긋나 자연계열의 인문, 경상계, 사범계열 등으로부터 언제 불만이 불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몇개 단과대

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균형있는 학과발전과 육성이라는 명분에 벗어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 10월 중순경 2차국고보조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1차분국고 및 교비보조금이 대총평을 위해 쓰였다면 이 예산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균형있는 배정을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예산조정과 한 관계자는 "2차분국고는 대총평 대비용이 아닌 시설·설비가 부족한 곳에 균형있게 분배될 가능성도 있다"며 예산분배 목적이 이번과는 다를 것임을 시사했다.

대총평 자체평가서 20일 제출 대교협 11월초 실시방문

본교에서 93년부터 준비해온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이하 대총평)가 지난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자체평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11월 초에 있을 현지 방문평가를 남겨두고 있다.

대학종합평가 인정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하는 제도'로 대교협에 의해 실시되며,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 설비 △재정, 경영 △대학원 등의 7개영역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진다.

본교는 지난 93년 12월에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 검토, 자료수집 및 분석을 거쳐 서울캠퍼스는 95년 11월, 경주캠퍼스는 97년에 평가를 받기로 했으나 '어느덧 합격보다 내실있는 학교 발전을 위해 서울캠퍼스 1년 연기한 바 있다.'

그 이후 올해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관, 문화관의 완공과 교과과정 개편, 난방공사 완비 등 교육요건을 보완했다. 이러한 자료를 96년 7월 5일까지 재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체평가 연구보고서를 수정, 검토한 후 최종판정 및 인쇄는 9월1일부터 시작해 완성된 자체평가 연구 보고서와 지난 20일 대교협에 제출하게 됐다.

한편 대학종합평가제에 대해 총학생회는 "내실있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학내 제주체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내용성을 기해야 하는데, 대총평은 내용성에 상관없이 모든 것에 순위를 매겨 점수화하고, 학교는 점수따기에만 연연해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대해 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대학은 거대한 공룡과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진단을 하고 치료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대총평을 통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대총평을 준비하며 그 과정속에서 학교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술문화관 명칭 확정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관·문화관'

올해 3월4일 준공식을 가진 학술문화관의 공식명칭이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관',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으로 확정됐다.

개교 90주년 학술관, 문화관은 공식명칭이 없이 '학술문화관'으로 불려왔으나 개교 90주년을 기념하고 1백주년으로 발돋움하려는 취지로 지난 16일 개최된 교무위원회의에서 공식명칭을 지정했다.

알림
추석연휴관계로 제1210호는 10월 7일자로 발행됩니다.

보리수

우리 속담에 '하늘을 보고 짐을 뺐어봐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고 하여 '하늘에 짐뺐기'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뼈와 살을 빌어 이 세상에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나서 흙에서 나는 곡식과 채소를 먹고, 생에서 솟아 흐르는 물을 마시며, 태양이 주는 따뜻한 기운으로 성장하고, 허공의 신선한 공기로 호흡하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물·태양·공기에 반드시 감사하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하늘에 짐을 뺐으면

우주 자연환경은 곧 나의 몸이요, 나의 몸은 우주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땅에다 할부로 오물을 쏟고 쓰레기를 묻어 흙을 더럽히고 죽어가게 만들고 있으며, 깨끗한 물에는 마구 폐수를 버려 썩고 있고, 유해한 가스를 날려 보내어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으며, 매연을 뿜어내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자연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자연을 더럽히고 훼손한다면 과연 썩어가는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인간도 같이 썩어갈지 아닌지 도망갈 수 있겠는가?

순수한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한다면 하늘에 짐을 뺐듯이 인간 스스로 그만 썩어버려 병고에 시달리는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장자(莊子)의 '제물론'에는 "천지는 나와 더불어 생하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라고 하였으며 승조(僧肇)스님은 '열반무명론'에서 "천지는 나와 뿌리가 같고, 만물은 나와 일체이다"라고 하였다.

천지자연은 내 몸과 하나임을 인식하고 나의 몸처럼 소중히 여긴다면 어찌 적게는 담배꽂초·쓰레기를 마루 버리고 크기는 오물과 폐수를 함부로 버릴 수 있겠는가.

'출요경(出曜經)'의 '염품'에 "모두를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모두 다 몸통이 고통을 겁낸다. 자기 몸을 응시받으려거든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고 하였다.

결코 천지자연을 남으로 여기지 말고 자연이 더러워짐이 곧 자기 몸이 더러워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자. 나의 죽음이 두렵다면 이는 자연이 썩어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안타까워하게 될 것이다.

순수한 자연은 인간에게 모든 혜택을 다 주면서도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자연의 맑고 깨끗함을 그대로 보존시켜만 줄 수 있다면, 자연은 무한한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까지 대가없이 어떤 바람도 없이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서 있는 발 밑을 잘 살펴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긴 호흡으로 숨쉬어보자. 자연은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다. 자연을 지배하려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 법산 불교대 선학과 교수

본교 '대학정보화 상위권' 평가 PC보유대수·전산화 높은 점수

동아일보가 지난 7월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대학 정보화 평가'에 본교가 상위 35개 대학중 하나로 선정돼 멀티미디어 9대, 정보검색용 1대를 지원받게 되었다.


전국 1백63개 대학중 정보화 평가 상위권 대학에 10억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이번 평가는 △기종별 PC보유대수 △학생 1명당 PC보유대수 △네트워크 연결 비용 △전산화의 학생 교수비율 △컴퓨터 실습실의 평균면적 △도서관 전산화의 수준 △행정 전산화 정도 등의 항목에 맞춰 실시했다.

이에 대해 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평가를 받는 범위가 올 2월까지의 현황에 국한돼 LAN설치나 현재 추진 중인 도서관 전산화에 관한 부분이 제외됐다"며 "내년에 다시 순위를 매긴다면 훨씬 높은 등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교수동정

▲목정배(불교학) = 오는 3월 이후 2시 뉴강종발명에서 박사도량 및 정발명 개교.

▲박정국(화학공학) =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YABEC 96 및 일본 화학공학회에 참석해 논문발표.



모집안내

-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명
- ▲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취재·사건기자
-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부,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서울캠퍼스-10월 4일(금) 오후 5시까지
경주캠퍼스-10월 10일(목) 오후 2시까지
- ▲전형방법: ①자기소개서-200자원고지 30매내외로 작성해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제출
②면접
- ▲면접일시 및 장소: 서울캠퍼스-10월 4일(금) 오후 6시
경주캠퍼스-10월 10일(목) 오후 3시
장소는 서울·경주캠퍼스 본사 회의실
-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동대신문사에서 내 삶의 무료함을 청산하고 싶다.

동대신문사

드라마 촬영보다

학생자치공간 먼저

지금 학내에서 학생들의 자치 공간을 넓히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교의 시설물들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학교에 대한 애착을 키워나갈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주 어느 쾌청한 가을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홍소리'풍물패인 나는 풍물연습을 하기 위해 학관 6층으로 갔다. 원래 다섯시 이전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섯시가 넘어서 연습을 시작했다. 선배와 함께 연습을 시작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와 아래에서 모 드라마 TV촬영을 하고 있다고 10여분 정도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해서 들어주었다. 학생된 도리로서 학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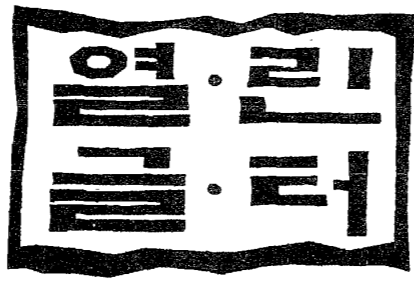
간접홍보인만큼 협조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심분이 조금 더 지난후 다시 연습에 몰두하며 흥을 돋우고 있는데 다시 또 오더니 NG가 났으니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끝내는 연습할 기본도 망치고 흥도 더이상 나지 않아서 그냥 집에 가버린 일이 있었다. 이번만은 아니다. 대운동장 사용중에는 운동부를 위해 나가야 했고, 길놀이할 때는 학내에 차가 너무 많아 차를 비켜 다녀야만 한다.

위의 몇가지 예로만 살펴봐도 우리는 학내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간접홍보도 좋지만 풍물패 활동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드라마 촬영보다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이 우선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은 세 진
(풍물패 '홍소리'단원)



인문학부 학생회실 대화통해 마련돼야

지난 1학기 학생회실이 마련되지 않았던 인문학부는 명진관 앞에 천막을 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임터를 마련했다. 문과대 학생회실과 사학과, 철학과, 윤리학과 학생회실을 전전공공하며 돌아다니고, 특별히 만날 장소가 없어 비가와도 불상 앞에서 우산을 쓰고 모였던 쓸쓸한 기억은 인문학부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95년도 야간강좌 신설과 관련된 중문과 수업을 신청했다가 전공교수가 없어 한달이 지난 후에도 교환교수로부터 수업을 받았다는 선배의 얘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학사행정의 미진함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새내기 1학기였다.

실제 인문학부 96학번으로 입학했는데도 학칙상 인문학부는 존재하지 않고 1학기중에도 행정상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아 성적장학금을 학부 이름으로 받지 못하고 세 학과 명의로 받았다.

2학년이 시작되었고 연대활동이 후 계속적인 공안판결과 학원 인정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하이텔(DGU)번방, ID: dpress메일과 여러분의 항상 열려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8

화 정책속에서도 학부생들의 순수한 공간 필요성의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난 12일, 제28대 문과대 학생회에서는 그간 진행되었던 공간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요구안을 학교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님에게 전달하였고, 명진관 내와 주변공간의 교육환경의 문제 등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문제를 제기한 2차요구안을 18일 다시 전달했다. 우리는 학생회의 힘으로 조효은원생 빈공간을 확보하였고, 그곳을 문과대학생의 자치학습공간으로 사용하여 인문학부생들의 학회실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2차 요구안에 담았다.

인문학부생들의 정당한 자치공간 확보의 문제를 비롯하여, 50년래 문과대는 독서실, 전산실 등 학습 여건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상황이

또한 외부인들이 명진관에서 화장실을 찾을때 장소를 가르쳐주며 오히려 무안한 기억도 있으며 우리들조차도 썩 기본중계 화장실을 다녀오지는 않는다.

학교발전은 서울캠퍼스의 공간문제를 일산으로 옮긴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학습

여건과 복지가 해결되는 것은 그제 공간이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공간일지라도 찾아 요구한 학생들과 대화와 협상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본다.

특히나 명진의 자치학습공간 확보는 결코 인문학부 일학년에 그치지 않거나 마련하지는 투쟁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해지는 하는 투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학습공간, 자치공간이 부족해서 발생하였으며 절대적인 공간의 부족문제는 학문 풍토의 저해요소로서의 공간과 설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학교·교수·학생 제 주체간의 명진발전 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길 바란다.

최 재 형
(문과대 인문학부)

학내 공중전화 '고장' 신속한 수리 필요

학내를 거닐다 보면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다. '고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이다. '현금카드 지급기 고장', '화장실 급수 고장', '자판기 고장', '전화기 고장'...

지난 19일에 있었던 일이다. 동국관에 있었던 나는 호수를 받고 전화를 하기 위해 제일 가까이 있었던 동국관 지하식당으로 갔다. '고장'이었다. 동국관 1층 2층에 전화기가 있을 때를 떠올린 나는 거의 뛰다시피 2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전화기가 한대밖에 없던터라 전화를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만만치가 않았다. 무작정 기다릴 수 있었던 나는 동국관 3층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그곳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난 다시 해화관 2층으로 달려갔다. '고장'이라는 끔찍한 스티커를 보고는 4층으로 뛰어올라 갔다. 세 사람이 서 있었지만 더 기다릴 여유 없었던 난 다시 한층 위인 5층으로 올라갔다. 사람이 없었다.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하며 전화카드를 넣었다. ...이런, '고장'이었다.

내게 온 뼈빠가 잘못된 것임을 밝혀내기까지 내가 뛰어다니던 거리와 흘린 땀,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넘길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일본 일초를 닮은 종래한 전화였다면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내에 전화기 부족과 잦은 고장, 늦은 수리 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고장 불감증'에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어떤 것이 '고장'났을 경우, 대부분의 반응은 조금 화를 내며 다른 곳을 찾거나 아니면 모두들 '저번에도 그랬는데 뭐라고 하며 쉽게 지나치기 일쑤다. 이제는 학교측의 성의없는 행정과 그것을 묵인하는 학생들의 '고장 불감증'이 사라졌으면 한다.

방 은 영
(사과대 신방과)

경주캠 학생회비 사용 지출내역 확실히

학생경비의 지출내역은... 학기마다 내는 등록금 용지에는 항상 수업료, 기성회비에 딸려 학생회비, 교지대라는 명목으로 만원이 추가되어 나온다. 돈의 액수를 떠나 한번도 학생경비지출내역에 대한 계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학생경비가 동창회비라는 말도 있고, 학년 초에 주는 수첨대금과 총학생회의 경비라는 말도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학기마다 거두어들이는 학생경비의 금액이 왜 만원이 되며,

그것도 일년에 두번씩 거두어들이는지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학우들이 상당수 있다.

타 학교들을 보면 학생경비는 매년 초에 한번만 내고, 금액도 우리 학교만큼 많지도 않다. 보통 3천원에서 5천원사이이다. 개인으로 보면 얼마되지 않은 듯 하지만 전 학생이 내는 걸 모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본다.

지출내역을 확실히 밝히고 거두어 들어야만 한다고 본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총학생회에서도 학교당국에 있어서든 그 지출내역을 일반학우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주었으면 한다.

박 진 영
(인문대 한문학과)

독자만평

근무중 이상무!!



유 지 원
(상경대 경상학부)



귀향길

- ▶가는 것도 힘든데 오는 것은 더욱더 힘든 길.
-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곳.
- ▶구속학우와 함께 고향길 가는 길 그야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을테니... 구속학우들아.
- ▶친구가 고향에 무척 가고 싶어하죠 안쓰럽네요. 귀향을 빨리...
- ▶아! 추석이다. 이번엔 무얼 먹을까?
- ▶구속학우들은 8월에도 못내려 왔는데 올해8월에도 못가는구나.
- ▶땀흘리는 고속버스를 위하여

- 오바이트 하지 마시다.
- ▶추석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분을 서울,아들은 모를것이야.
- ▶그래 댁다카이.
- ▶지방 학생들 확연히 버스타고 내려가는 걸 알면서도 수업을 강행하려는 모교수님은 제발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 ▶애들이 미안하다. 나만 비행기 타고 가자...
- 王道는 없다.
- ▶엄마, 아빠, 동생 보고 싶다.
- ▶동생아 추석때 고향에 잘 다녀오나라.
- ▶수업으로 귀향...막차로의 귀향...기쁘군요.
- ▶차라리 기본에 마음 설레이고 고향에 두고온 이쁜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
- ▶슬픔같은 이 길은 어둠이 축 처진 나의 등을 떠밀면 어서 이서 가지하세. 그곳으로.
-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지금 고향으로 간다.

알림

지난호 '오솔길'에서 '경주청년회'를 '경주민주청년회'로 정정합니다.

동/문/칼/럼

가을이야기



시원한 매미소리가 귓가에 쟁하고 울렸던 것이 어제같은데 어느새 싸늘하게 가을을 적시는 비가 내리고 있다. 나의 동양 학창시절 역시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회상을 해본다.

신입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학문을 들어서고 나서 후부터는 새터와 대성리를 오가며 선배들로부터 술 마시는 법을 배우는 데 고박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또한 충무로의 온갖 문화시설, 즉 밥구장과 카페, 맥주집등의 이용을 익히는 것에도 365일을 투자하였다. 그후로 뒷받침된 대문과 나서는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젊은이들의 문화(X세대 논의라든지 레게음악 등)와 컴퓨터 등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취업'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맞닥뜨리며 나의 학창시절은 어느새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쯤 도서관에서 눈에 불을 켜고 밤으로 학업에 열중하느라 여념이 없는 어떤 학생이 위에 나의 글을 읽고는 조금은 한

심하게 생각할 지도 모르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반대로 나 역시 학창 시절 도서관에서 책과 늘 씨름하는 그들을 심히 답답하게 여겼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다. '세상에 경멸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들은 저렇게 도서관에서 귀중한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나의 학창시절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가을이 성큼 다가와 버린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흔히 익살스럽게 이야기하듯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 동양에서 소중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을 후배들에게 이 말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다. 동양의 1만학우의 생각과 사 서로 다르듯, 각자의 삶의 방식, 가치관, 생각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전부 알고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알고 이해해 나가기 위한 조그만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각자의 삶을 살찌우는 것은 물론이요, 전 동양의 발전까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후배들이여!
책 읽기 좋은 이 가을!
책도 좋지만 바로 옆에 있는 학우와 이 가을을 이야기함은 어떤별지...
김 민
(동서증권 감법지점·사원95졸)

독자 사진 **이이는 길곳이 없었다**



리 정 현 (사과대 사회학과)

동/약/광/장

- 동약인의 영원한 희망 백상 웅원단의 19대 응원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김재성의 백상 20기 일동
- KUSA 26기 유영근 선배님 CPA(공인 회계사)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 영민·정훈의 D-U-B-S 퀴즈 1주 우승을 축하하며 이왕 시작한 것이니 3주까지 하기를...
- 든든한 후원자들
- 릴라의 행동개시를 축하합니다.
- 릴라를 지지하는 한 여학우
- 그리고...
■ 건의! 총학생회본들 도서관앞이 당산네를 땀입니까?
■ 제발 동약의 교정에서 더 이상의 유치한 성년쟁을 그만 두십시오!!
■ 술마루! 그 거침없는 도전에 찬사를 보내며 응원하라.
- 자신의 생각이 관습적이고, 틀에 박힌 성격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려 하는자 그것은 소위 배움을 뜻으로 한 학생이 아니다.
- 영문과
- 어른이 되기위해 알고 있는 사랑스런 자만이 언니!!! 언니의 이름이 빨리 치유되길...
- 정아연
- 자연과학부 96학번 춘천여고 출신 백하연(?) 연라해라. 012-999-3105
- 한일
- 수교교과 국교교과 축구시합을 했는데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니다. 수교교과 이기기를...
- 룰메이트
- 경제학과 91학번 이봉규형 꼭 대학원 시험 합격하세요.
- 룰메이트
- 통산대로 맺어진 나의 소중한 인연 고래발, 칼날같은 비판의 중심에 너를 울퉁게 세우겠다면 그말대로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한다. 이제 그만 슬독에서 헤엄쳐나오길 바라며, 29일날, 미역국 꼭 끓여주마.
- 기
- 수고하셨습니다
■ 철학과 디오나시즈제 준비하시는 분들! 호프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경원
- B&D 여러분 설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 통기

다항관 식당			
23(월)	달걀볶음(1,200)	소고기국밥(1,200)	
24(화)	카레라이스(1,000)	감바탕(1,500)	
25(수)	삼겹살볶음(1,200)		
26(목)	후	후	
27(금)	후	후	
28(토)	후	후	
동국관 학생식당			
23(월)	달걀자장(1,500)	참치비빔밥(1,200)	
24(화)	미트볼볶음(1,200)	버섯찌개(1,200)	
25(수)	쇠고기부추국(1,000)		
26(목)	후	후	
27(금)	후	후	
교직원 식당			
23(월)	김치전골(2,500)	쇠고기비빔(2,700)	
24(화)	닭고기(2,700)	쇠고기(2,700)	
25(수)	삼겹살(2,500)		
26(목)	후	후	
27(금)	후	후	

온방골

- 26일, 재원이가 귀백한 날입니다. 동국대학생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 배
- 정도야!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 대모가
- 부산 미스터 육체미 선수관 대회 3위 수상한 율학92 이도환군 정말 축하합니다.
- 친구가
- 재원이형, 휴가를 축하해요.
- S-W
- 10월1일 산·안·공 96학번 경찬이 생일 축하해.
- 4대 천왕이
- 은미야!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그날은 죽을 각오로...
- 호우회 이그들
- 민재량 삼상체 C·C·C·C 축하해요.
- 통기
- 회계 모든 예산통과 축하해요.
- 회계화도가

- 연이와의 3백원 기념을 자축합니다. 그리고 아직 수험생인 연이가 이름을 보고 용기를 내서 꼭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 사랑하는 오빠가
- 축하해 주십시오. 동국 미식 축구부가 지난 13일 효성 카톨릭대의 경기에서 18:0으로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싸우 학교를 빛내겠습니다.
- 동국대 미식 축구부 White elephant
- 당신의 복학과 우리들의 1천3백만원 축하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 가득가득 영원한 당신시길 바라며
- 담신바라기
- 수고하셨습니다
■ 日文 2학년 짝 짝 M·T를 축하합니다. 모두모두 수고 많았어요.
- 여러분의 나
- 불휘 제4회 정기발표회 너무나 멋졌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오버 액션
- 열심히 합시다
■ 백백아, 우리 열심히 하자. 비록 현실적인 재입학자이지만.
- 84학번 김중순
- 백백아, 수업 빼먹고 집에서 뭐하니? 앞날이 걱정이야. 우아든지 열심히 해라.
- 영2

- 그리고...
■ 제7차 SBS남자 신인발탁 선발대회에서 아깝게 탈락하신 율학과 92학번 주정환 선배님, 너무 애석해 하지마시고, 다음번엔 꼭 붙으세요!
- 율학과 여학생회 일동
- 나, 성식은 첫 휴가를 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내다 간다. 나의 친구들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라. 98년에 보자.
- 신성식
- 효순이 집에 갈라고 머리 쥐는 데요. 효순아, 집에 잘 다녀오렴.
- 석
- 신승훈조 아그들이, 추석 멋지게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꾸나.
- sh모양
- 건우 오빠! 10월6일 시험 잘치세요.
- 사랑하는 현경이가
- 한울로 여러분, 송편 많이 드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 집행부 일동
- 동대생 모두들 추석 연휴 무사히 명거오세요.
- 호진
- 국사학과 답사와 졸업여행 갔다온 분들 좀 쉴게세요.

목errick

- 축하합니다
■ 역교 서찬욱의 생일을 한수를 대신해서 축하합니다.
- 재원과 의재의 만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 안오빠 제대 25일전을 축하해요. 건강하고 저도 많이 생각해주세요.
- 재성아와 민영아의 만남을 축하하며 영원한 우정이 있기를...
- 재성이 사교추진위원회 일동
- 경제학과 93학번 박남진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현대 CPA후보생인 광진아와 함께 꼭 후보생의 꼬리를 떼기 바란다. 또한 운전면허 필까지 4년 본 너의 합격을 기원하며...
- 회사원
- 김은경! 스무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 영문학과 94학번 왕공주 권혜진의 귀뻐진날을 기원하며...
- 수정이가

민주화와 기득권 부패척결 거스르는 일



한상범
법과대학법학과 교수

연세대의 한홍권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의 강경대를 조직이 다각적으로 전개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에 힘입은 공안세력은 대응책의 일환으로 국가안전기획법을 개정해 안기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993년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안기부의 수사권한이 지나치게 위법 남용되어 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안기부의 7조와 10조 조항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시켰던 것인데, 이를 원상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그 타당성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시정의 서민대중의 촉각은 공안정국의 회오리 바람이 또 다시 불어닥치는 것을 예감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역대 정권은 위기가 닥치거나, 선거에서 표를 잃을 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려고 할 때에 보안법을 악용해 왔던 것을

시사논단 안기부법 개정의 부당성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조차도 일찍이 이 법의 개폐를 한국정부에 공식으로 건의했을 정도이다. 국제 인권기구나 국제사면 위원회로부터의 문제 제기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기부법 개정논의에 대해 개운치 못한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혀서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국 일각에서 안기부법을 개정해서 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안기부법 3조 3호의 문제이다. 이 3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 중에서 보안법 7조와 10조의 죄에 대해서는 안기부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제외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3년 김영삼정권 출범 직후 민주개혁의 입법조치로서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 민주입법 성과를 백지화하는 법개정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 보안법 7조와 10조는 어떤 내용으로, 왜 안기부 수사권의 대상에서 제외됐는가? 이 점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먼저 보안법 7조는 이적표현죄로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적인 조항으로 인정해서 '헌정합헌'의 결정을 했다. 다시말해 위헌적 규정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엄정한 제약조건하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우선 이 조항이 정

한 죄의 유형은 막연하고 불명확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통하게 되는 위험한 요소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악용되어 왔다.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도 이 조항의 적용에서 나왔다. 술 한잔 마쳐서 알간한 김에 육탄탄 잘못해서 이적 표현이란 죄목으로 걸려 드는 것이다.

그리고 10조는 불고지죄로서 이 죄의 유형은 인륜·인도에 반하는 것이고, 그 적용상 악용될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극단으로 비유해서 자기 아버지도 밀고해야 하는 조항이 바로 불고지 죄이다.

여기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국가보안에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해치려는 것은 아니다. 안보를 범지한 탄압을 미리 막자는 것이다. 이제까지 40여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보안법이 없다고 해서 한국이 망할 정도로 형편없는 나라라고 보지 않을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톤튼히 하는 길은 민주화와 부정부패를 숙청함으로써 이 사회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애착과 장래의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민주화의 길을 개척하고 부패한 기득권층의 만국구화될 무적임을 바로 잡는 일 아닌가? 1993년 민주 개혁의 일환으로 안기부법

서 왜 수사권에 대해 제한적 조치를 했는가 하는 것을 당시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현재 정보 공안기관으로 안기부를 보는데, 그 조직의 성격상 비공개 되는 특권을 비롯해서(안기부법 6조) 예산회계에서 예산의 배정 사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특별 배리가 있고(중법 12조 2·3·4항), 안기부 직원은 국회에서 안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어느 나라에도 예가 드문 특권이 있다.(13조 1항), 그리고 안기부법 3조는 국가안보와 관계된 필요한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에 따른 수사권과 각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를 정해서 활동에 차질이 없게 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그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치공작이나 정치 탄압에 이용되지 아니했으면 우수한 인력으로 충분한 효과를 더욱 달성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항상 아쉬운 점이 있다. 우리는 정보공안 기관이 이슬람 정권하에서 김장률 특무대장의 정치개입과 횡포에 질렸고, 박정호 정권하에서 정보부가 4대 의욕사건과 공화당 비밀창당과 선거조작을 하며 공포의 대상이던 것에 신물이 난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등장은 보안사가 추적이 되어 민정당을 만들고 온갖 위법 위변을 자행했다. 이렇듯 안리라고 하는 것이 문민정부의 의지라면 안기부법에서 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범위의 확대도 당연한 문제의 실마리를 푼다고 하는 발상을 무리하게 밀어 부쳐 당초의 개혁을 거꾸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물론 기본적인 문제는 국민이 그러한 발상 자체의 한계와 문제점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강력히 제기하는 일이다.

사설

귀향의 의미

뜨겁던 여름의 열기는 이제 스러지고 향그럽게 익어가는 열매들의 맛은 깊어간다. 훨씬 높아진 하늘과 한결 청명한 날씨는 사색과 성찰의 계절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흥성한 수확의 계절인 이 가을의 대박풍경은 어떠한가, 아직도 한층 더 한파가 가시지 않고 있고 각 대학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다. 총학의 집행부가 구속되거나 지명수배 중이던 모 대학은 과감하게 학사정계처분을 결행했다.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구속 기소되어 강의실이 아닌 차가운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학생들은 이런 열세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고자 대자보도 붙이고 플래카드도 여기저기 내걸어보고 또 여러 행사를 벌여 학우대중들의 관심을 모아보려 하지만 사정이 그리 원만하게 풀리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때마침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학부위가 추진하는 귀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향을 찾아 성묘하고 부모님께 문안 드리는 일도 전래의 미풍양속으로 지켜나가기 할 일이지만, 맹목적으로 연휴를 즐기는 고향나들이로 끝나서는 안된다. 즉 금번 귀향사업이 단순히 고향 가는 교통의 편의만을 위한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우리 현실을 생각하는 지성적 사고와 순수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가 더 보태지기를 바란다. 삶을 고뇌하는 대학인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해볼 일이다.

그런데에서 이번 사업의 추진에 아쉬운 점이 있다. 연휴에 앞서 24일에 귀향버스가 출발하는 계획도 결국은 수업결손을 초래할 여지가 다분하다. 또 귀향프로그램에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음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자선과 봉사의 기회도 아울러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남는다. 이제라도 총학과 학부위는 서둘러 귀향사업의 내용성을 확보하는데 애를 써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처 귀향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귀향할 필요가 없는 서울 또는 광주 거주 학우들도 나름대로 연휴에 어떤 의미있는 일을 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보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차디찬 감방에서 명절을 보낼 구속학우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석방을 기원하는 우정을 더욱 간절히 다져야겠다. 우리 모두 새삼 추석연휴와 귀향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총학도 인파의 침체와 위축을 떨치고 학우대중의 성원을 집약하고 획득할 수 있는 혁신된 기풍과 사업을 꾸려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중요로운 가을과 혼돈한 인정의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진지한 면학분위기와 열렬하게 고뇌하는 자성이 힘있게 생동하는 대학가의 모습이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 나진·선봉 투자설명회 참가 무산배경과 영향

‘선봉초청’ 남한 배제전략 구사 맞대응으로 경색국면 초래말아야

고유환
사회과학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특구 모델을 원용하여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결정 74호를 통해 나진·선봉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이념적 위기와 함께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 북한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개혁 경험을 '당정적 교환'으로 삼아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극히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북한식('우리식')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경제적으로 특정지역을 경제특구(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여 자본주의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고자 대외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모범은 경제특구를 통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경제적 성과를 얻어서 이를 내부의 사회주의 경제와 연결시켜 생산력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은 비정상상태에 빠진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자본주의로부터 긴급 수혈을 받기 위한 조치이다. 북한은 월액형이 서로 다른 과거 수혈될 경우 소크나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충격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극히 제한적인 개방의 특정지역을 개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험적인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은 최근 나진·선봉의 자유경

제무역지대를 동북아 지역의 국제화물 중계기지, 수출기공기지, 국제적 관광 및 금융기지로 개발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그동안 49개의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외자 유치를 주력해 왔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정치적 불안정 등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아직 외국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업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남한측 참가신청자 53명 중 정부 및 언론 관계자를 제외한 기업인 25명에게만 초청장을 보내왔다. 남한당국은

북한의 선봉초청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고 하면서 투자설명회의 불참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합작 프로젝트의 추진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있다.

북한은 선봉초청에 대해 "자의적 선별이 아니며 기업인을 최대한 참가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일본 참가자들 가운데 정부, 연구기관, 언론관계자는 물론 관광객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일부 관측가들의 예상과 달리 남한 당국자들과 언론인들의 초청을 거부한 것은 남한 자본과 기술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긴급 수혈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난을 해결한다는 대전제 하에 김일성의 유혹사상으로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중국 화교 기업인과 일본 초총련 기업인들

의 투자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서방자본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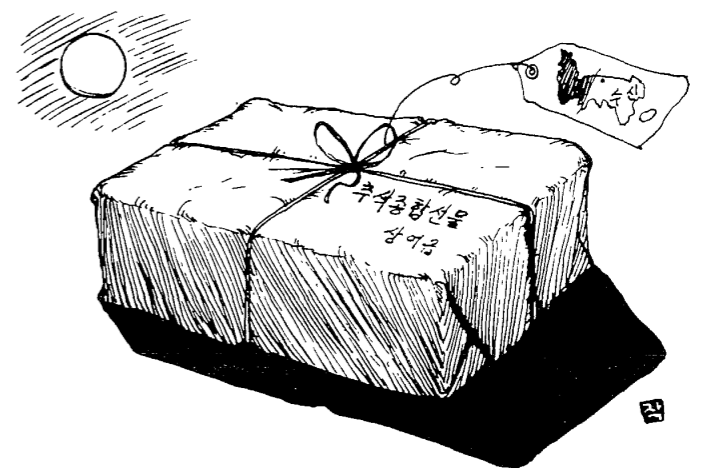
특히, 중국은 북한경제의 붕괴와 이에 따른 난민의 중국유입을 두려워하여 중국기업은 물론 홍콩 등지의 해외 화교 기업인들에게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홍콩의 엘페레(英孚)그룹은 나진 부근에 특구호텔과 카지노를 짓는 1억 8천만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체결된 전체 투자계약액 2억8천2백만 달러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당국이 10월중 북한의 경제특구로 한국 기업 대표단을 단독으로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의사를 내비쳤다가 취소하는 등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선거를 앞둔 남한정부도 '간첩침투사건'을 계기로 보수층을 의식한 대북 강경정책을 펼 것으로 보임으로써, 북한의 '남한 배제전략'과 맞물려 남북한 간의 경색국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만정

고대성



내가 만난 삼성, 삼성인 ①

“남미를 손에 쥘 서른살”

삼성전자 브라질지역 전문가 박윤희 대리

브라질에서의 1년을 생각할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아름다운 리오 데 자네이로항, 삼바축제의 열기, 끝없이 펼쳐지던 아마존의 밀림 - 그리고 도하나 잊혀지지 않는 서른삼배기 열기가 있다. 삼성의 지역전문가로 파견되어 있던 삼성전자 박윤희씨 - 복잡한 업무 때문에 왔으리라고 짐작했던 내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브라질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것이 1년간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21세기 최고의 남미 지역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회사원이 된다는 것은 몸바니커처럼 주어진 일을 반복하는 것일거라고 믿고 있던 내게, 그의 대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람을 전문가로 키울 줄 아는 회사, 그리고 패기와 정열로 그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들 - 이것이 브라질에서 만난 삼성, 삼성인의 모습이었다.

한국 외국어대학 포스트칼리지 3학년 김혜영

삼성엔 업무를 떠나 자유롭게 언어와 문화 관습 등 현지 경험을 쌓아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지역전문가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놓고 논란이 많다.

정부는 95년 3월 가입신청을 한 이래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데도 OECD 가입을 위해 경제전반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 분야에 뚜렷한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준비위원회(대표=김진균·서울대 사회학 교수)'의 경우 이분야의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인사를 초청하는데 두달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와같이 정부추진 사업임에도 활발한 논의가 없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 OECD 가입 방침을 결정한 상태라서 가입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진다 하는 것은 다른 정책 추진에 혼선을 줄 뿐이라는 사고에 기인한 듯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OECD 가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소리가 높아 문제되고 있다. OECD 가입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진다 하는 것은 OECD 가입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타당성을 논하고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우리가 세계경제에 운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력이 무역규모 세계 13위(1994), GNP규모 세계 11위(1995)의 위치를 점할 정도로 성장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의 위상을 걸맞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제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 한국의 OECD가입에 따른 제문제

서비스업 전면개방 등 자유화 압박 '심각'

가입 전제조건 갖추기 위한 개혁추진 시급

주장이 반영됨으로써 얻게되는 이득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세계경제 흐름에 관련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선진국의 제도와 관행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선진국 경제질서 형성 논의에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써 사전에 대응하고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선진국과의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사회·경제제도와 관행을 회원국 규범에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소비자 권의 보호나 환경개선, 노사관계 발전 등을 촉진해 국민생활의 질적개선을 앞당긴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많은 회의와 문제점이 지적된다. 세계경제 운영 참여의 권리가 주어진다고는 하나 우리의 입장과 국제적 입장이 다를 경우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방대한 자료가

주어지고 선진제도와 관행을 배울 수 있다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히 이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여러 조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개혁작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OECD 가입으로 인한 이익은 다소 과소적이고 불분명하다. 그러나 손해나 부담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가장 먼저 우리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OECD 운영경비를 분담해야 한다. 기구의 공통목적을 위한 1부 비용과 특별사업에 소요되는 2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회원국의 GNP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부담을 규모는 1부 비용의 경우 약 1.32%(약2백80만 달러), 2부 비용은 참가사업별로 1.32%에서 2.79%(약 97만 달러)로 총부담 액수는 3백77만 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부담보다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국가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 OECD 가입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 요구되는데 그중에서 스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 스정경상무역의 거래 자유화라는 양대 자유화 규약이 특히 중시된다. 자유화 규약으로 인해 우리가 OECD에 가입할 경우 자유화에 대한 상당한 압박과 서비스산업에서 대외개방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국면에 처하게 된다.

1992년 현재 우리나라 자유화 실적 조사내용에 의하면 자비노동에 관한 자유화 진전율은 13.2%, 경상무역의 거래에 관해 특별사업에 소요되는 2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회원국의 GNP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부담을 규모는 1부 비용의 경우 약 1.32%(약2백80만 달러), 2부 비용은 참가사업별로 1.32%에서 2.79%(약 97만 달러)로 총부담 액수는 3백77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국내 산업 가운데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금융 부분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체질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금융시장 개방 속도만 빨라질 것이다. 거대자본과 선진경영 기법으로 무장한 외국 금융기관의 무차별 공세로 국내 금융기관의 생

존이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금융제도의 안정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거대자본의 유입으로 원화의 평가절상이 야기되고 이는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실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돼 국내 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이같은 상황은 95년 멕시코 페소화 폭락사태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이를 곧 우리의 상황과 같다고 연결시킬 수 없으나 멕시코의 OECD 가입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면 비슷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자본시장이 개방되었을 경우 그것이 경제정반에 긍정적으로 이용된다면 모를까 거대독점 세력의 형성과 재벌기업의 우선 사용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는 OECD 가입에 있어서 경제적 부분만 고려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OECD회원국의 기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한한다. 금융

경제 관련 부분 뿐만 아니라 노동, 농업, 주택, 공공 부문 정책 등 한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수준이 평가되는 것이다.

지금은 OECD에 대한 무조건 가입이나 무조건 반대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굳이 말하자면 조건부 가입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성섭(숭실대 무역학)교수는 "이러한 개혁작업이 어렵더라도 이를 취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정부의 규제를 풀고 산업구조를 재편성해서 먼저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그 연후에 대외개방을 도모하는 것이 대외개방으로 인한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혁의지가 요구되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교육개혁, 사법개혁, 노사개혁 및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계속해서 시중은행 경영 재구조화로부터 독립, 중앙은행 독립, 공정거래 질서 확립, 재벌문제의 해결, 세계개방, 보건 사회행정에서 환경행정에 이르기까지 개혁이 이루어져 OECD 가입의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OECD 가입자체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가입을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 못하면 개방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감당해야할 부담을 책임지지 못할 것이며 접근할 기회를 위한 노력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지은 기자)

등약도

열기 그 어떤

"타자 쳤습니다. 푸욱푸욱 하늘을 가르는 타구입니다. 어이구 중견수에게 잡혔군요. 아깝습니다."

지난 19일 있었던 중어중문학과와 야간 전자계산학과의 야구 예선경기에서 전산과 학생이 때린 공을 중문과 수비가 잡아 전산과 학생들이 뒤편에



에 가도 응원단의 목소리는 가을 하늘에 메아리 친다.

또한, 교내 주변에 선 운동복 차림의 축구공이나 배구공, 야구공 등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부 학생들이 응원하는 모습은 여간 보기 힘들다. 야구장에서 만난

한 교수님은 "예전에 계열별로 학생들이 모였을 때와 같은 상황이 지금 학부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96학번 학부 학생들은 배상 체전이라는 뜨거운 열기에 취해 보지도 못한채 어느 곳에도 소속감이 없는 상태"라고 한숨을 내뿜는다.

대운동장도 야구장과 별한 다를 것 없이 학부 학생들의 응원소리는 고요할 뿐이다. 북과 징과리를 들고 나와 응원에 열심인 행정학과 축구 경기 응원에서도 축구 경기를 관람하던 스탠드에서도 학부 학생들의 응원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경기장을 뒤로한 채 돌아오는 등반 가을 하늘 아래 학부 학생들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은 무엇일까? (신용우 기자)

◇ 조선족노동자 실태

불법체류 약점 동포라고 예외없다

산업재해·임금체불... "모국이 싫다"

박민식(가명)씨는 지난 2월18일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동포다. 그는 중국 흑룡강성 천림시에 사는 비노기과 의사였지만 중국에서는 의사라는 직업도 그리 생황이 여유롭지 못해 가족의 생계 고민과 모국 땅을 밟고 싶은 욕심에 한국에 입국, 일당 7만원짜리 목수일을 시작했다. 건설현장에서 전전하던 그는 지난 5월26일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된다. 전기 튼날에 의해 왼쪽 관절을 크게 다친 것이다. 회사측은 일단 병원에 입원하고 상태를 봐서 '간단'하면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심각'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입원한지 3개월이 지나도 감강 무소식, 견디다 못한 박씨는 아픈 다리를 절며 회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회사측은 도리어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들어 "경찰에 신고해 본국으로 송환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아 섭섭해 하던 박씨에게 말이다.

현재 박씨와 같이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노동자는 약 3~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에 있는 각 나라별 외국인 노동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이다. 중요한 건 이미 언론에 의해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와 노동력 착취가 한 민족·동포인 조선족



◇한국에서 산재·사기 등의 피해를 당해 심외에 빠져있는 조선족들. (사진=한겨레21)

노동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노동자들의 권의 보호를 위해 지난 94년 설립한 중국노동자센터(이사장=이광수·서울대교수)의 조선족노동자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는 1년에 80여건, 사기·폭행에 의한 임금체불은 이들에 한건 정도 접수되고 있고, 체불액은 평균 2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접수되지 않은 건수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민족·동포이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은 고용인들로부터

지나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돈이면 뭐든지 한다"는 일부 고용인들의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은 "돈이면 민족도 없다"는 인상을 동포들에게 질게 심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중국동포에 의해 한국인 선원 7명이 살해된 페스카마호 선상란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건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은 "같은 동포에게 이렇 수 있느냐"는 것이었지만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

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다각적인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노동자센터에서 만난 조선족노동자는 "조선족 동포를 고용하는 한국 원양선에서 잡자는 사람을 담배불로 지져서 깨우는가하면 쇠파이프로 머리 수시로 치는 등 선원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자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조선족 사회에서 그에 대한 반감이 일고 있어 중국노동자센터는 사건이 있기전 정부에 '선상폭력 실태조사'를 수차례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카마호 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민족의 이질감 문제는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중국동포들은 모국에 대한 감정이 많이 상해있다. 한국을 다녀가 볼 수가 되고 임금을 사기당한 노동자들, 한국 원양선에 취업해 온갖 말수와 천대를 받은 선원들, 조선족 자치지구에 놀라와 흥청망청 돈을 뿌려대는 한국인을 지켜보는 그들 사회는 과연 모국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5년째 중국노동자 문제에 매달려 온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어 "북한은 무역량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을 오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조선족들이어서 그들이 가지는 한국의 이미지는 북한주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고 말해 남북 문제에 있어서 조선족들이 갖는 의의를 강조했다.

조선족노동자 문제에만 국한시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전체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통틀어 생각하면 안될 말이지만 조선족노동자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지난 6월 법무부가 발표한 '중국동포의 국내취업 확대 방안'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자못 기대가 크다.

(김희동 기자)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상상

光·速·人·間이 펼쳐는-

21세기 축지법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정보활용능력이 정보화시대의 축지법입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정보화를 선점, 생활화하면 아무리 멀리있는 세계도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의 구축으로 네트워크경영을 해보십시오. 인터넷 등의 컴퓨터통신을 해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광속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축 지원, 컴퓨터통신을 통한 고급정보제공, 정보교육을 실현하는 삼성데이터시스템.

개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축지법, 정보활용능력으로 정보화시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정보기술 서비스 전문회사

삼성데이터시스템

※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해: 컨설팅, BPR, MIS, EIS, CIM), 시스템통합관리(SM), 정보통신, 정보기술교육, CAD/CAM, SW, 컴퓨터통신

※ 하드웨어: Open System, Downizing, Client/Server, Multimedia, Window GUI 등 최첨기술 구현

추석을 맞이해 그동안 집을 떠나 학교생활을 해온 지방 학생들이 귀향길로 향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이를 계기로 지방학생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기숙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서울캠-생활비 부담 커 기숙사 확장 보수 절실

학교 식당 불만족 심각... 식사 질 개선 필요 -경주캠

서울캠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도서관 앞에서 귀향표를 예매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5문항에 3백명의 학우들이 설문에 응했으며 설문조사는 출신지역과 남녀 구분없이 실시됐다. 학년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경상도(1백32명 43.9%), 전라도(82명 27.3%), 충청도(42명 14%), 강원도(19명 6.3%), 경기도(16명 5.3%), 제주도(9명 3%) 순으로 대부분이 서울과 멀리 떨어진 원거리 지방 유학생이었음을 밝혀준다. 지방학생이라는 특수상황때문에 학교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 문제(95명 33.2%), 식생활 문제(69명 24.1%), 거주지 문제(58명 20.3%), 개인생활 문제(45명 15%), 기타(19명 6.6%) 등을 꼽았는데 식생활 문제와 거주지 문제가 44.4%로 학생들이 기본적인 생활부분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의식주 생활을 포함 한달에 지출하는 생활비로는 30만원대(1백14명 84.8%), 40만원대(75명 25.3%), 50만원대(64명 21.5%), 60만원대(20명 6.7%) 순서대로 응답, 30만원대가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해 다수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70만원 이상 지출에도 24명이 응답해 8.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비의 수입원으로는 부모님에 전액 의존(1백96명 65.3%), 아르바이트로 20%정도 해결(50명 16.7%), 아르바이트로 50%정도 해결(23명 7.7%), 스스로 전부 해결(22명 7.3%)순이어서 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생활비를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 유용비(1백24명 41.6%)가 교재비(57명 19.1%), 집세(55명 18.5%), 교육비(36명 12.1%), 교통비(26명 8.7%)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해 경제적인 문제를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응답했던 것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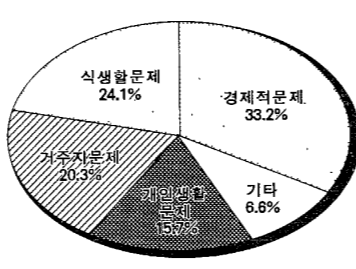
◇식생활

두번째로 많은 학생이 응답한 항목인 식생활 문제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중 2백26명이 대체로 식사를 해결하는 곳으로 학생식당을 꼽아 76.4%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그뒤로는 하숙집에서 해결(29명 9.8%), 학교 근처 식당을 주로 이용한다(26명 8.8%), 직접 만들어 먹는다(14명 4.7%)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과반수가 훨씬 넘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된 학생식당의 만족도는 가격과 질 모두 불만족(1백25명 41.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격만 만족(1백24명 41.5%), 가격과 질 모두 만족(42명 14%), 질만 만족(8명 2.7%)의 결과를 보여 식사의 가격뿐 아니라 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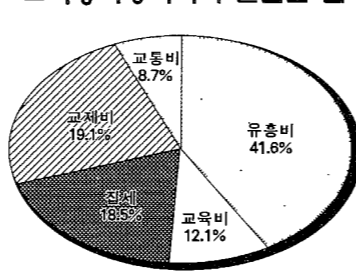
◇거주지

세번째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거주지 실태를 알아보자. 현재 거주하는 곳은 자취집(1백18명 39.3%), 하숙집(76명 25.3%), 친척집(70명 23.3%), 기타(27명 9%), 학교 기숙사(6명 2%), 공립 기숙사(3명 1%)순으로 나타나 자취와 하숙, 친척집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교 근처 하숙집의 불편한 점으로 비싼 하숙비(98명 47.1%) 시설 문제(54명 26%) 식사질(26명 12.5%) 집주인의 간섭(19명 9.1%) 구하기 어렵다(11명 5.3%) 등을 들었다. 한편 기숙사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던 학우는 1백42명으로 50.5%였으며 나머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싶었으나 사설이나 여학생 기숙사가 없는 점 등의 여건이 맞지 않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84명 29.9%)와 있는지도 몰랐다(49명 17.4%)는 의견을 보여 현재 학교기숙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정도가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숙사의 문제점으로 작은 규모(75명 31.8%), 시설(58명 24.6%), 위치(53명 22.5%)여러가지 제약(50명 21.2%)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개선해야 될 점으로

(서울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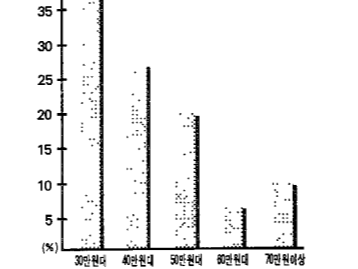
▲지방학생이어서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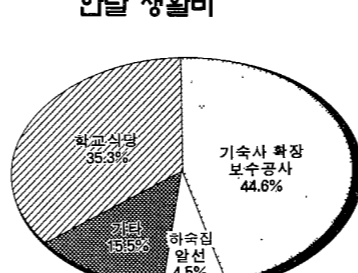
▲식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

로 기숙사의 규모 확장이나 보수 공사(1백29명 44.6%)를 가장 많은 학생이 지적했으며 학교측에 학교식당 개선(1백2명 35.3%)이나 하숙집 알선(13명 4.5%)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지방학생을 위한 뚜렷한 복지 혜택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지방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숙사마저도 상황이 좋지 않고, 지방학생을 위한 복지 사업 계획도 전무한 상태다. 지방학생들의 편의를 그나마 제공하고 있는 것은 학생자치기구인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서동욱·경대4 이하 학부위)뿐이다. 학부위는 89년부터 귀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학기 동안 지방학생들에게 하숙집과 자취집 등을 알선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었으나 학우들의 반응이 미온적이고 연게도 잘 되지 않아 이번 학기부터는 집중적인 중단을 하게 됐다. (양지연 기자)

(경주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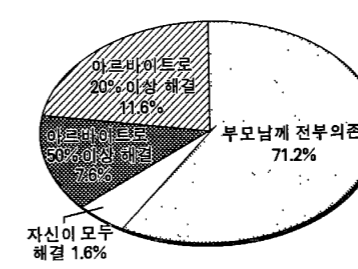
▲의식주 비용 포함인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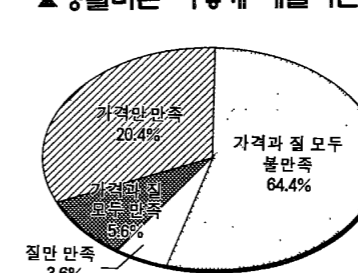
▲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점

경주캠의 지방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을까. 경주 캠퍼스내 재학생 7천6백36명을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도(1천1백16명 70.7%), 경기도(7백46명 19.9%), 강원도 및 제주도(98명 3.8%), 충청도(45명 2.9%), 전라도(56명 2.7%)로 인원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2백5명중 가장 많은 거주지로 나타난 것은 경상도(60%)다. 이는 경주부근에서 통학하는 수를 제외한다면 나올 비율로 추정되어진다. 다음이 경기도(25.6%), 강원도·충청도(4%), 전라도(2.8%), 제주도(1.6%)로 나타났다. 이결과 경상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질문의 답변결과 식생활 문제(33.2%)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 경제문제(31.6%),

(서울캠 결과)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학교식당 만족도

개인생활문제(15.6%), 의료보험문제(11.6%), 거주지문제(7.6%)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과가 나왔다. ◇식생활 위의 결과내용의 식생활 문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온 것을 보더라도 학생들의 식생활은 생활의 큰 주요인인 것으로 작용하기에 시사해결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식사해결을 대체로 어디서 하는냐는 질문에 67.7%가 학교식당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외에 학교근처식당(16.6%), 직접만들어 먹는다(11.6%), 하숙집(10.4%), 무용담(0.4%), 이종대담(1.2%)로 나타나 학교식당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보편화된 학교식당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질문에 64.4%가 '가격과 질 모두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20.4%가 '가격만 만족'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가격과 질 모두 만족(5.6%)' '질만 만족(3.6%)'의 수치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이는 지난 14일 식당인상 가격에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강하며, 가격의 인상은 인정하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20.4%)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생활비

생활 어려움이 두 번째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생활비의 평균은 어느정도일까. 이에 대한 의문에 48.4%가 3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70만원이상 쓰는 4.8%의 인원과 대비되어진다. 이상의 응답은 40만원대(35.2%), 50만원대(9.6%), 60만원대(1.6%), 무용담(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비의 해결은 71.2%가 '전부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16%의 자신이 모두 해결한다 결과와 대비되었다. 이와 응답은 아르바이트로 20%이상 해결(11.6%), 아르바이트로 50%이상 해결(7.6%)이 나왔다.

◇거주지

지방생의 거주지에 대해 응답자의 64.4%가 자취집으로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학교기숙사(16%)로 답했다. 이에 비해 하숙집(4.4%)과 친척집(3.6%)은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에 나타난 하숙집의 낮은 수치는 하숙집의 가장 큰 문제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하숙비가 비싸다(33.6%)'와 '관심부족(16%)'현상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학교기숙사 인식에 대한 질문에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다'는 대답이 47.6%, '기숙사생활을 하려 했으나 여건이 안돼 포기했다'는 대답이 25.2%, '있는지도 몰랐다'는 대답도 5.2%나 나타나 학교기숙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식생활

이러한 예측속에서 지방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에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여러가지 제약(종교, 시간...)'이 56.8%로 가장 크게 나타나 제약이나 구실을 싫어하는 요즘 세대의 성향을 나타내 주었다. 이외의 대답은 작은 규모(18.6%), 시설(15.6%), 위치(4.8%), 무용담(4.8%), 이종대담(1.6%) 등의 순이다. 마지막으로 지방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는 것에 학교식당의 식비와 질부분(34.8%)과 보수공사 및 건물공사(32%)를 우선 순위로 두었으며 이외의 기타(4.4%)의견으로 학교시설, 교수질 확보, 소음문제 등이 나와 학생으로 느끼는 문제점도 함께 알 수 있었다. (이현주 기자)

기숙사 실태

'기원 학사' 규모·시설 열악 '금강생활관' 자격제한으로 갈등

이번 지방학생 실태조사를 통해 상당수에 이르는 학생들이 본교에 기숙사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조차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하더라도 사설이나 규모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본교 기숙사 기원학사는 70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며 육실이 25개, 공동 세면장, 화장실, 식당 그리고 별당을 갖추고 있다. 기숙사 운영은 학생들이 한 학기에 42만원씩 납부하는 것과 학교측에서 한달에 5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79년 준공된 이래 큰 시설을 교체나 개보수없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학생들의 인력한 기숙사 생활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에 사정장 김영목(블고 3)은 기숙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난방과 식단 문제를 꼽고 있다. "난방문제의 경우 석유히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되는 석유 질이 안좋아서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불만이 많다. 음식의 경우 한정된 비용으로 인해 식단이 고정되어 다양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 하다. 다만 기숙사의 전면적인 개선을 뜻하는 것은 부지때문이라고 말하고 있

다. 학교측은 현재 기숙사 부지가 송가대학 소유로 1년 한번씩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3~5년 정도의 장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난방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주캠퍼스의 경우 이번 방학기간에 14년동안 사용했던 남자생활관이 10여억의 비용으로 내부공사를 마쳐 다소나마 시설적인 면이 보충된 상태다.

원격지 의료보험증 발급방법

이번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원격지 의료보험 발급이 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그 절차를 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학교에서 재학생명서 1부를 발급받는다. △피보험자(부모)의 직장 해당기관에 구비되어 있는 원격지 의료보험증 발급신청서 1부를 발급받는다. △해당 의료보험관리 기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 각종 의료보험 조합,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원격지 의료보험증을 하우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은·조인선 기자)

원격지 의료보험증 발급방법

이번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원격지 의료보험 발급이 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그 절차를 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학교에서 재학생명서 1부를 발급받는다. △피보험자(부모)의 직장 해당기관에 구비되어 있는 원격지 의료보험증 발급신청서 1부를 발급받는다. △해당 의료보험관리 기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 각종 의료보험 조합,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원격지 의료보험증을 하우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은·조인선 기자)

正道경영·초우량 LG

화학의 목표는 인간입니다
더 아름다운 인간의 삶, 더 질서는 나라-
화학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최고의 고객만족

화학강국이 미래강국

첨단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모든 산업의 핵심기술은 화학-
화학이 앞선 나라가 미래의 새로운 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21세기 화학강국으로!
LG화학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 이 오 테 유전공학 기술을 응용하여 인공신장호르몬, 제4세대 항생제 등 첨단화학 신물질개발

첨보전자소재 고도의 기술융합 연구로 정보소재를 앞당기는 반도체 기층소재 등 개발

석유화학 석유화학 범용수지 및 자동차, 우주항공 분야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혁신적인 고기능 신소재 개발

정밀화학 무공해 녹색 생활용 첨가제, 석유화학 중기계 등 고부가가치의 신물질, 신기술 개발

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제품 연구개발

LG화학

LG화학·LG석유화학·LG얼라이드시그널·LG오웬스코닝·LG MMA·(주)실트론

대중매체·자본, 대학문화 뿌리까지 침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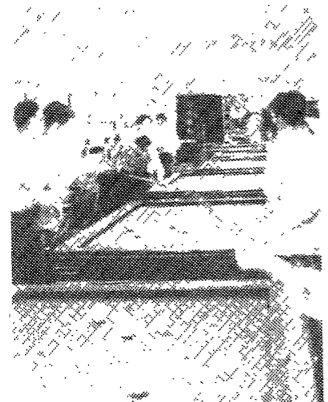
“경직된 논의는 싫어” 솔직한 신세대 등장해 기존가치 거부

1. 신중 대학생의 출현

“변했어, 우리들 말이야...” 딱히 고학번 선배와의 술자리에 서간 들리는 말이 아니다. 90년대의 대학생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를 취거언 선배의에도 ‘매체’ ‘가정’ ‘학교’에서도 다뤄져 내고 있는 것이다.

“남을 생각하는 미덕이 없다”는 ‘신세대들은 철부지’라는 비난과 지적하는 그들의 말에 ‘위선’과 ‘면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조할 수 밖에 없다. 확실히 80년대까지의 대학생들과 현 대학생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 대학생들의 변화의 첫 징후는 ‘신중대학생들의 대거 출현’이다. 80년



대 내내 ‘침묵하는 다수’라고 불렸던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거둬들여 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총학생회’를 상징하는 운동권들이 ‘울다’고 하는 방향에 ‘체제 저항정신’과 ‘대동’으로 적극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정류’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던 과거 대학생들과는 달리 그들은 “나 예기는 좋지 않다” 혹은 “나 예기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싫다’고 겁 없이(?)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초반, 학생회는 이런 신중 대학생들의 등장에 무뎠히 솟수를 해 했다. 통일론은 멀고도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은 아직 보장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너무 ‘무지’라며 ‘무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중 대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 다수를 차지하고 대학생들의 일반화 되어 버리지, 부라부라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분석의 결과는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현실이었다. ‘탈냉전’과 ‘문명정부’의 시대에서, 먹고 살만한 경제제 은행탈속에서, ‘이념’과 ‘정치’를 논하는 일은 대학생들에게 더 이상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대학생들은 80년대말 포

스트 모더니즘의 등장과 함께 일어난 ‘문화담론의 열풍’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다. 개성을 앞세운, 자기 표현 욕구를 자극하는 많은 담론들(하이테크, 뉴미디어, 성정치, 락, 신세대, 대중시각 문화 등)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티브이, 비디오, 컴퓨터가 대량보급되자, 대중문화가 장악해버린 ‘미디어’에 낚이 나간 그들은 게스칭바지에 무크랜드, 무스르 치켜올린 머리칼과 짧은 미니스커트를 하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공학기술훈에 은혜를 입은 대중문화가 스스로를 격상하며 대학생들을 자신의 품안에 끌어안은 것이다.

2. 대학문화의 위기

신중대학생들에게 기존의 대학문화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70년대의 탈춤 부흥운동과 청바지 그리고 풍기타 및 80년대의 투쟁적인 문예실천으로 대변되는 대학문화의 자취(진보와 공동체의 논리)는 더더욱 멀어졌다.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구조하에서 어디 ‘공동체’와 ‘진보’가 팔이 되나고 항변한다.

그들의 항변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토의·포럼을 몇몇 더 올리고, 캠퍼스를 잘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양 때리고 있는 매체를 보면 ‘경쟁력’ ‘경쟁력’이라는 말을 되뇌이며, 옆 친구에게 부지런히 활약을 걸고 있어야 ‘모범적인 학생’이 되는 듯 하기 때문이다.

이런데 학생회는 모범학생이 되려는 그들의 의지를 ‘자신을 희생한



공중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말로 과감히 쫓아내리더니 여전히 ‘반정부’와 ‘반미’라는 이념적 구호를 인격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1995년의 학생회 선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학생회 위기는 대학문화에서 ‘공동체 문화’로 소산할 활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기도하니까) 투표율이 유권자



◀90년대의 변화란 대단한 것이다. 탈냉전·문명정부 시대 상황속에서 대학생들은 ‘공동체’와 ‘진보’라는 80년대 선배의 사고와는 달리 다양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해 재선거를 하는 경우가 낫설지 않았고, 70년대 트란 넘으면 전국최고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학생운동이 위기를 극렬히 침투된 곳도 드물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공간은 당구장, 비디오방, 노래방 등, 머리와 마음을 즐겁게하는 문화공간(예를 들면 서점, 북카페, 생활도서관)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것이 본고 주변문화의 현실이다. 목적의식을 가지기 보다는 재미있게 즐기려고하는 학생들에게 위와같은 상업적 놀이 문화의 증가는 오히려 반감을 지운다. 다들 민중가요를 소리높여 부르기도하는 마이에 대해 대고 김건모의 ‘스피드’와 ‘클라의 3/4’를 힘껏 뽐내며 부르는 것이 훨씬 쉽고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래방에서 ‘개인주의 문화’를 조장한 가장 큰 상업문화로 대변된다. 이는 노래방의 권력구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마이크를 쥔 사람이외 나머지사람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거나 박수를 쳐주는 등의 소극적 행위로 놀이를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본주의, 개인주의, 대중매체가 침투된 학교주변 문화의 현실속에서 대학문화의 ‘저항’과 ‘회복’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

구를 충족시킬 수 밖에 없는가? 대학을 둘러싼 공간에서 저항성을 찾는 일만큼 어려운일이 있을까? 그만큼 소비자본주의 문화가 극렬히 침투된 곳도 드물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공간은 당구장, 비디오방, 노래방 등, 머리와 마음을 즐겁게하는 문화공간(예를 들면 서점, 북카페, 생활도서관)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것이 본고 주변문화의 현실이다. 목적의식을 가지기 보다는 재미있게 즐기려고하는 학생들에게 위와같은 상업적 놀이 문화의 증가는 오히려 반감을 지운다. 다들 민중가요를 소리높여 부르기도하는 마이에 대해 대고 김건모의 ‘스피드’와 ‘클라의 3/4’를 힘껏 뽐내며 부르는 것이 훨씬 쉽고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래방에서 ‘개인주의 문화’를 조장한 가장 큰 상업문화로 대변된다. 이는 노래방의 권력구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마이크를 쥔 사람이외 나머지사람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거나 박수를 쳐주는 등의 소극적 행위로 놀이를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본주의, 개인주의, 대중매체가 침투된 학교주변 문화의 현실속에서 대학문화의 ‘저항’과 ‘회복’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

끼진다.

3. 대중문화와의 계렬라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옛말 있다. 이것을 본문의 이야기로 바꾸어 말하면 “대학문화가 아무리 위기시기가 해도 대학생들의 의지만 온전하 게 추어져 있다면 희망은 있다”는 뜻이다.

90년대 대학생들에게 온전한 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대중소비문화가 ‘잠시해간 대학의 현실을 인정하고부터 시작해야 하나’가, 또한 ‘진보’와 ‘공동체’의 약화된 전력을 가지고 ‘대중매체’의 공격에 맞서 계렬라전을 준비하는 대학문화에게 우리는 또 ‘중대한 무기가 없음을 알리자만 하나’가, ‘대학문화에 대한 ‘본질적 정의’와 ‘노선의 명확성’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기.

그렇다면 대학 문화란 무엇인가?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선배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 ‘진보’ ‘공동체’에 ‘다양성’의 범주를 더 없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대학문화에 대한 정의를 끝냈다고 할 수 없다.

‘탁음악’ ‘성정치’ ‘환경’을 대학문화의 장르로 끌어들이며 ‘저항’과 ‘일탈’ ‘전복’의 정신을 실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다양한 기획과 노력을 발견할 수 있지만, 대가업을 스스로서 활용한다든지, 대중인기가수를 초대하는 모습들 역시 선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과 ‘인기’를 다양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는 서현승(서울대 총학생회 전 문화부장)의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학문화란 인간의 본성을 고루하는 문화이어야 합니다. 공동이 인간 관계를 꿈꾸며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을 길러내고 이후 해방사회를 일구어가는 하나의 주체로서 자기표현을 증명해주는 문화 말이죠”

대학문화는 흔들리고 있다. 대중문화에 침식당하고, 개인주의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자본에 대학생들의 의식도 흔탁하게 변해 버렸다.

그러나 가장 큰 ‘대학문화의 위기’는 대다수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너의 예기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싫다’고 자신있게 학생운동을 비판하던 학생들도 “왜 싫은지”에 대한 물음에 입을 다무는 것처럼 숨이 주춤 이루는 대중매체를 몇번씩 치루어내도 ‘비관’보다는 ‘무관심’으로 바라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소비항락문화가 지켜줘 줄을 뚫는데도 말이다.

(문화부)

대학문화 찾기 시리즈

80년대까지 대학문화를 지탱해온 화두는 ‘저항’과 ‘진보’였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문화욕구를 지닌 ‘신세대’들이 등장하자 대학문화는 ‘진보’ ‘공동체’보다 ‘다양성’의 논리가 더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디까지 대학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대학문화에 대한 올바른 현실인식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이 기획을 마련한다. (편집자주)

차례

1. 대학문화는 붕괴되었다
2. 동대문화의 현실
3. 동아리의 연대와 소통을 향한 음부림
4. 서태지의 저항과 축제를 통한 새길 찾기

달 하나 천장에

새로운 소비문화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참물은 아무래도 배백과 워크맨이 아닐까? 지하철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만이 혼자 즐길 수 있는 워크맨을 귀에 꽂고 타인의 간섭을 거부한다. 배백 또한 개인과 개인끼리만 연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학생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요즘 학교 근처의 학습집은 예전처럼 2인 3인이 쓰는 학습이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독방이 인기다. 또한 젊은 층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패턴이 오피스텔이라 한다.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혼자 사용하므로 특히 선호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 나고 있다. 그래서 웬만한 대학생의 꿈은 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서 벗어나 학교 근처의 오피스텔에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 싱크대를 갖추고 혼자 독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자동차까지 갖추면 금상첨화다. 물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는 그리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재화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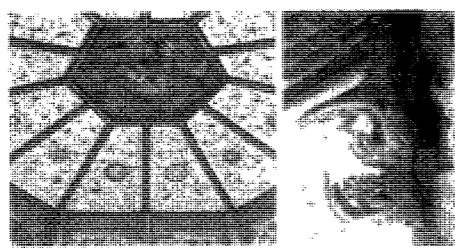
자 이처럼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편의성 때문에 개인혼자만 사용하는 재화가 늘어날 때 그 재화의 사용효율성은 어떨까? 개인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므로 그 물건들은 개인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용되지 않고 단지 소유했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소비문화는 사실 우리사회를 대단히 잘 사는 나라로 발전된 것처럼 착각시키는 GNP계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그러한 물건들을 가족이나 친구가 공유하면서 서로 나누어 사용하던 시절보다 생활의 질이 더 향상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개인의 과소비는 결국 사회적으로 재화의 과소비를 연결되며 소비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개별적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만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에 대해서는 투자에 인색하다. 사용에 있어서도 개인 소유물의 사용에는 지극히 신경을 쓰지만 공공 시설의 사용에는 아까운 것이 없다. 이런 식의 소비패턴으로 인해 쓰레기도 많아진다. 한편 만들 때 흔하게 만들어 오려 쓰기 보다는 유행따라 값싸게 만들어서 얼마 안가 버리고 새로 유행하는 물건을 산다. 그래서 전에 쓰던 물건은 쓰레기가 되고만다. 물건이 팔려도 남이 쓰던 것은 쓰고 싶지 않게 된다.

배백보다는 각 학생회관이나 동아리방에 전화용 놀이 공동사용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컴퓨터보다는 학교 컴퓨터실의 규모와 용량을 늘리며, 학교주변의 비싼 오피스텔보다 시설이 더 좋은 기숙사를 쓴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게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도서보다는 도서관의 책을 돌려 소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소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자신의 방보다 학교의 동아리방이 더 깨끗하고, 자기가 소유한 물건보다는 학교에 비치된 물건이 더 질 좋은 것이고, 자신의 컴퓨터보다 학교의 컴퓨터가 더 편리하며, 학교의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가 더 신적도서이며, 학교 화장실이 집의 화장실보다 더 깨끗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더 높은 질의 재화를 쓴 값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소비문화를 누릴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사범대 가정교육과 교수 박명희

POSCO메시지 문학관



▲ 의상대(義相臺) 천정과 기둥 : 6각을 기본으로 두리 기둥을 세워오며, 낙산사를 가이이 되어 섬세한 문양이나 단청이 사찰의 건물처럼 예아니다.



‘씨앗을 심고 정자(亭子)를 바라본다’

처음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아름다운 낙락정승으로 자라납니다. 소나무 씨앗을 심어놓고 사람은 그 제목으로 지을 정자(亭子)를 생각합니다.

식송망정(植松望亭) — 초석을 놓을 때 이미 완성된 집을 상상하는 사람 — 작은 일도 큰 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는 옛성인의 이야기는 열린 세계를 앞두고 가능성을 키워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줄의 글, 하나의 체험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씨앗입니다.

세계제일의 칠강기업 — 포항제철

모의면접 호응속 개최

참여자 개인별 단점 지적·교정

지난 17일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본교 처음으로 모의면접이 실시됐다.

취업과(과장=김철서)와 졸업준비위원회(회장=남익희·경제4)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큰 호응을 얻었다.

메이크업 및 코디 특강과 본교 김생진부총장의 격려사에 이어 시작된 집단면접은 총 2개조 10명이 참여했다.

또한 총 2개조 10명이 참여한 집단토론면접의 주제는 '영광군 일차량발진소 건립'과 '이찬진·김희애에 결혼'이었고 면접관으로는 본교 정기

섭 사회과학대 학장, 한국일보 신대남 편집국장, 금강개발산업의 강태인 전무, 현대그룹 김철순 이사, 대우 박장욱 기획인사팀장 등이다.

면접후에는 강령시간을 통해 면접관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교정해 주었다.

모의면접에 직접 참여한 지상운(일문·4)군은 "실제로 면접을 봤던 것만으로도 정말 좋았다. 몰라 나아질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장·단점을 잘 알게 되었다"며 "내년에도 이 행사가 열려 후배들도 좋은 경험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복위 토익 특강 실시

프로그램·강사선정에 질적 향상 노력

제12대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서동욱·경제4 이하 학복위)는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가을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가을특강의 내용은 △시스템 TOEIC △엘리트 종합 TOEIC △가르 TOEIC △영어독해의 V-OCA2200이며 강의 수강료는 2만원이고 강의시간은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다.

또한 이번 처음으로 학복위가 지

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임강사를 뽑아 질적 향상을 꾀한 '영어회화'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수업을 하며 강의시간은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와 8시부터 8시 50분까지로 나뉘어져 각각 초급반과 중급반이 배정되어있다. 영어회화 수강료는 7만5천원이고 모든 강의의 수강신청은 오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구내서점에서 하면 된다.

생협출범준비 로고 공개모집

자판기 종이컵·전면광고도안 공모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는 2학기중 생활협회를 준비하며 로고를 공개 모집한다. 자판기용 종이컵도안과 자판기 전면광고도안을 함께 공모한다.

내용은 생협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고 환경보호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접수기간은 1차 접수가 오는 10월4일까지, 2차접수

가 10월7일부터 18일까지다. 공모요령은 생활로고의 경우 형식의 제한은 없고 종이컵도안은 A4규격, 자판기용 전면광고도안은 A3규격이다. 1인이 세부분 모두 응모 가능하며 캐리커처, 만화, 삽화등도 가능하다.

시상은 각 부문 대상1편에 70만원, 가작1편에 30만원이고,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이 주어진다.

교수회·직원노조, 용역·사환 초대

한가위 맞이 나눔의 자리 마련

제5대 교수회(회장=김익기 사회학)와 7대 직원노조(위원장=김정욱)는 추석을 맞이해 본교에서 근무하는 용역, 사환들과 함께 오늘(23일) 저녁식사 자리를 갖는다.

교수회 김익기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고, 본교의 환경과 경비 및 기타 사무를 보느라 헌신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저녁식사에 초대된 직원들은 본교에서 근무하되 정식직원은 아닌

사람들로 청소용역 70명, 경비용역 20명, 사환 50명이다.

직원노조 최일우 사무총장은 "이 자리를 통해 교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얘기하며, "7대 노조에서 내세운 교수, 직원을 비롯한 학내 주체와의 연대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공식적으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학, 한가위 한마당 개최

시국법회·하루주점으로 침체분위기 일신



사진은 지난 20일 개최된 한가위 한마당에서 한 학생이 제기를 차는 모습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구장주·야간경영4 이하 비대위)는 지난 20일 중앙 도서관앞에서 '한가위 한마당'을 개최했다.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 실시되는 '동국의 날' 행사와 함께 치뤄진 이번 한마당은 11시부터 늦은이, 제기차기, 널뛰기, 연판들기 등 학생들이 직접할 수 있는 놀이로 꾸며진 '민족문화 한마당'이 열렸고, 오후에는 '시국법회'와 '한가위한마당'이 다채로운 행사속에 펼쳐져 최근 움추러졌던 학내 분위기를 일신했다.

3시부터 진행된 한가위 한마당은 한마당 선포를 시작으로 떡치기, 송편빚기, 떡 나누어주기, 뽕놀이·제기차기 경연대회, 구수자에게 한마디 쓰기 등으로 이어졌고 구수학우 영지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구장주 비대위 위원장은 이번 한가위한마당에 대해 "한가위를 앞두고 민족의 대명절을 되새기며 구수학생들에게 대한 고민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려 했다"며 그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날 12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시국법회에 참석한 석필회

(회장=윌서스님) 회원 30여명과 학생 40여명은 "민주화를 바라는 단체들이 단결된 힘을 모아 현시국을 타계할 것"을 결의하고 구수학우 석방을 주장했다.

가을농활 실시

가을 농촌활동이 오는 10월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충북 봉양읍 송학면 일대에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구장

주·야간경영4 이하 비대위)주최로 실시된다.

비대위는 이번 농활에서 △각 단과대를 조직적으로 연결하는 일꾼 양성 △연대활동 강화를 통한 농민발전 △법률, 의학, 사생대회등 전문적인 영역의 확대 △학교 당국에 대한 봉사학적제 실시 요구 등 4개 기조를 세우고 있다.

비대위는 올해 마지막 농활이 끝이던 가을농활 기간 중에 쌀수입 반대운동과 재전 농민회 사무실 개원 축하방문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은주 학생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O형 남자혈액·치료비 부족 어려움 커

요하나 현재 4~5명의 남학생만이 접수되어 있어 O형 남학생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학생처(처장=곽은규·교육학)는 업무보고를 통해 김양의 상황을 설명하고 송석구 총장으로부터 금일봉을 전달받았다. 선상구 학생부처장은 "학내 구성원들 모두 김은주양 돕기 모금

운동에 동참하도록 교수회, 직원노조, 총학과 연대해 김양들에게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심주현 응생과 학생회장 역시 "전 동국인이 김양을 돕기 위해서 대자보, 학보등을 이용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해 '김은주양 돕기'운동은 교내에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인문학부 자치공간 요구

조흥은행 옆 창고 점유

문과대 학생회(회장=원진욱·사학4)가 지난 18일 인문학부 자치공간으로 조흥은행 옆 창고를 점유해, 절대공간 부족에서 비롯되는 공간 문제가 또다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처는 문과대 학생회에 지난 18일 '조흥은행 옆 창고'는 관제 관리의 동절기 대비비용을 적재하는 곳이니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통보문을 보냈다.

문과대 원진욱 학생회장은 "공간이 있으면 주겠다고 학교측과 약속했다"며 "부서진 의사 협의합을, 빈

박스 등이 있는 조흥은행 옆의 공간을 우리 스스로 찾아낸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관제와 김계현 계장은 "학생들이 보기에는 창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것 같지만 창고도 중요한 공간"이라며 "방증공사후 창고 있던 자리가 보일리실로 바뀌어 창고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 이르면일상 생활 곤란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문과대 학생회는 지난 20일 관리처장과 학생부처장을 만나 오는 10월 초 공식적 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도서관 26·27일 휴관

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은 추석연휴기간인 26, 27 양일에 걸쳐 전관휴관을 실시한다.

열람과 류종기 파장은 "추석연휴 동안 학교에 나와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열람실을 개방할 경우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휴관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연휴기간인 28, 29일에는 종전과 같이 도서관이 운영된다.

교환학생 파견

본교는 일본 대정대 교환학생으로 5명을 선발, 오는 27일 파견한다. 교환학생 김은주(일본대학원 일문 석사과정), 민동진(일문3), 이현우(일문3), 박현배(무역4), 김일호(석사3)등 5명은 등록금 면제에 월 8만엔의 생활비를 받으며 1년간 대정대에서 학업을 인정받게 된다.

한편 교환학생은 3학년 이상으로 일어필기, 일어회화, 학교성적,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됐다.

학과소식

인문학부 임시총회

오늘(23일) 6시 명진관(A101)에서 공간문제를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연다.

철학과 영화감상론 공문

영화 '서기 2019 블레이드러너'에 대한 감상문을 본교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철학과 행사인 제17회 더오너스즈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 공모전은 오는 25일이 마감이며 매수에는 제한이 없다. 발표는 10월 1일 5시에 명진관(A104)에서 영화상영과 함께 한다.

수학과 동문 기자재기증

지난 17일 최영환 동문(82졸)이 수학과 발전을 위해 전산실에 레이저 프린터를 기증했다.

사학과 추계정기답사

지난 19일 과장설 50주년 기념으로 제89차 추계정기답사를 일본의 류슈지방으로 떠났다.

동아리소식

손짓사랑회 수화연극제

수화동아리 손짓 사랑회(회장=최정진·화공2)는 어제(22일)와 오늘이틀에 걸쳐 학술문화관 소극장에서 제3회 사랑의 수화연극제를 연다.

서도회 졸업전시회

서예동아리 서도회(회장=이형준·화공2)는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간 학술문화관 전시장에서 가을전시회 및 졸업전시회를 갖는다.

학전무대

집에가고 싶다

O...그동안 풀어왔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뽐소 실천하는(?) 추석연휴, 지방학생들의 설레임은 하늘을 찌르고, 교수님들은 촌놈(?)들의 가슴을 찌른다는데, 알아본즉 24일 화요일 오전 귀향버스에 몸을 실을 지방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강행하겠다는 교수님들이 다수라는 것.

이에 수업과 고향의 기로에서 서서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고 있는 한 지방학우 예처로운 목소리로 하는 말 한마디 "교수님, 고향하늘에 뜬 보름달이 보고파요..."

대자보 집합

O...여기서도 멀지, 거기서도 멀지 이는 아무데나 붙여있는 대자보를 읽기 위함, 여기저기서 읽노라 학생들은 강의실 전면에 땀을 흘리고, 빠른 진군도 이루어져야겠지만 내달내달 해지는 대자보로 학내환경도 나날나날, 이를 해결하기위해 후문, 중문, 학생회관에 게시판이 새로이 만들어졌는데, 게시판의 효율적 활용으로 신속한 진군, 깨끗한 환경을!

초(華)아닌 초

O...이게 뭐야? 팔정도 잔디에서 뒹굴던 학생을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꽂이에 눈살을 찌푸리는데, 다소한 헛살, 학생들의 웃음소리, 잘자란 잔디 팔정도에 자리한 화단은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그만,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이 담배꽂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휴식을 취하는 학생들을 언짢게 해, 이에 한 학생 왈 "담배꽂이는 초(華)가 아니라 걸 모르세요?"

아누스

O...이강철 의원의 아들 결혼식은 비현까지 동원한 초호화판이었다는데, 같은 하늘에 떠있는건만 연대 교정 위에서 최유택 뿌리고, 관공서 위에서 비행기 축하메세지 보내고...

황기에서 뿌려대는 최후역으로 뚝에 수포가 생겼던 학생하늘 쳐다보며, "공중에 떠있는 것은 같은데...아누스의 부활!!!"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쉽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쉽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금강·고려

▲ **출사 금강** ▲ **고려화학** ▲ **금강종합건설**

Go! '96 부산국제영화제 9.13-21

PIFF

관람평

제1회 부산 국제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시 남포동 극장가는 '부산이 가라 앉는것이 아니냐'는 즐거운 비명이 흘러나를 만큼 연일 영화를 보러오는 관객들로 북서풍을 이뤘다.

지난 19일 주말에 비해 그 혼잡도가 덜 하기는 해도 첫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인 오후 12시 이전부터 오밀조밀 모여있는 남포동 극장가는 들뜬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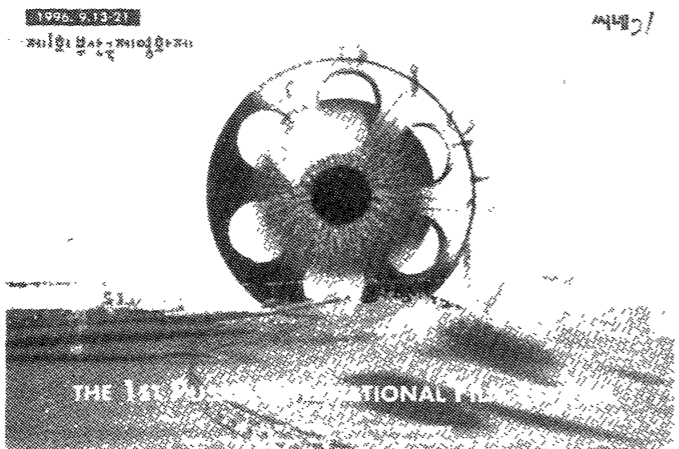
조직위는 예상 관객수를 이미 상향 조정했고 극장 좌석 점유율도 평균 70% 정도를 웃도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렇다. 단지 영화에 불과한 볼거리를 위해 부산 시민들과 전국에서 이곳 부산으로 원정은 영화팬들은 혼잡함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영화 축제가 열리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매우 감격해하고 있다.

이렇게 '시네마 천국'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그러한 중, 매일매일, 그것도 드물지 않게 그 '시네마천국'이 오직 상가권 관객의 마음 속에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하나 돌씩

넓은 관람시설·상영 중단등 준비 미흡 아쉬워



1996. 9. 13. 21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린지 지난 13일 저녁 요트경기장에서는 정말 해괴망측한 사건이 발생했다. 약 6천명의 관객과 초대 손님, 취재단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개막 행사와 불꽃놀이가 끝나고 이내 개막 초정작 '비밀과 거짓말'이 대형 스크린 위에 영사되기 시작했다.

이 해변의 야외 상영이라는 '이벤트'를 불미스런 '사건'으로 얼룩지게 한 장본인은 다음날 취재단이었다.

영화가 시작되자 한참이 된 후에도 '플래시(Flesh)'는 연신 터져 나왔고 그 번쩍이는 섬광에 하늘은 흰하게 밝아져 스크린 위의 자막은 물론이고 형체조차도 알아볼 수 없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뿐이다. 대부분의 극장이 넓고 불편했지만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영화가 상영 취소되고, 한글 자막이 준비되지 않고, 중간에 영사기가 멈추고 급기야는 영화 상영이 중단되고 장내에 불이 들어오는 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17일 오후 3시30분경 영화 종영 30분 가량을 남겨놓고 '조용한 마을'상영이 중단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막 상태의 불량과 영사기 고장을 이유로 들어 환불 조치, 귀가를 종용했으나 끝까지 영화를 보려달라고 항의한 약 30명의 관객에 의해 남은 부분이 상영되었고 영화가 끝난후 집행위의 책임자가 뒤늦게 해명을 했다.

국제 영화제에서 '영화 상영 중단'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상영이 중단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3천원의 환불조치만 반복해서 강조해서 되겠는가?

필름의 틀이 뒤바뀐 치명적인 영사상의 실수가 상영 중단의 주된 이유였지만 책임 미루기와 안일한 대안책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불거졌다.

영화제가 끝날때까지 사소한 문제들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조금더 발전된 모습의 제2회 부산 국제 영화제를 기대해 본다.

한승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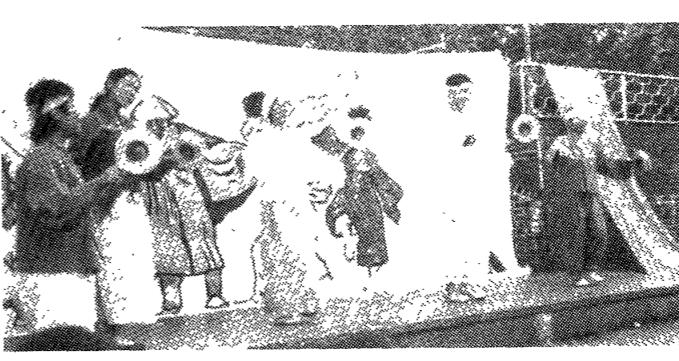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과정

했다"며 감독에 대한 평을 얘기하고 감독은 "그 시대를 담아내면서 주제의식이 배어나도록 하기 위한 연출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흥행인의 연기력에 대한 진지한 평가 내리기도 한 자리였다.

30여분간의 한정된 시간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감독과 관객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 수 있었다는 것에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

(이성용 기자)

◇'제1회 대학마당극 한마당'을 찾아 "대중문화에 저항하는 창조적 대학문화 만들 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등기덕 쿵! 얼수! 쫄~다!" 이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만큼 흥겨웠고 웨라 말할 수 없는 매력이었다.

이것은 대학마당극 공연들을 한 자리에 모아 많은 관객들과 함께하며 그 성과들을 공유 발전시키자는 취지에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지역 대학성 탈레 협의회(의장=장세철,한양대 행정4 이하 서태협)의 주관으로 열렸던 제1회 대학마당극 한마당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다.

이번 행사는 대학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으로 3개의 마당극이 공연되었다.

그런데 하남극단의 '상여소리'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할아버

두가 하나임을 말하는 듯 했다. 마당극 외에도 김늘이, 고사, 철북놀이, 불산탈춤, 고성오광대, 양주별산대, 강령탈춤 등의 전통탈춤공연, 먹거리, 대동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하루의 공연 후에는 학생들과 관객모두 함께 춤을 추고 술마시는 뒷풀이도 눈길을 끌었다.

서태협 장세철 의장은 "대중문화를 선도했던 대학문화가 요즘은 대중문화에 휩쓸려 다니는것 같다"고 아쉬워 하며 "이에 저항하는 건강하고 대학다운 창조적인 대학문화의 한 부분을 만들고자 이 행사를 열게 되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행사는 연세대에서 있었던 한총연사태로 재정적인 면이나 탈관을 끌어모으는데, 섭외가 취소되는 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계획보다 많이 축소되어 진행되었다,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관객이 다소 늦어지고 일정이 조금 바뀌는 등의 미비점도 있었다.

3개의 마당극이 진행되는 동안 공연장은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고 모두들 진지한 표정을 짓는가 하면 할아버지 한분이 무대로 뛰어나와 춤을 추는 등 연기자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같이 참여하는 자리로 모

두는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한)

스케치

평일에도 연일 매진 사례 시민들 관심높아

"열린영화, 세계를 향해 가는 영화제..."

충무로를 벗어난 영화제라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지난 17일 먼저 찾아간 곳은 가로 33m 세로 18.5m의 초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야외 상영장 수영관이다. 대외표판도 수십억이라는 데 가히 수긍할 만했다.

현재 지하철 공사카 한창인 부산의 교통난을 영화제를 위해 수영관과 남포동을 잇는 유람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예초의 보도와는 달리 "ID카드와 초경중을 제시"하라는 관계자의 말에 한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일반시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영관에서 2시간을 들여 남포동까지 가야 했다.

도착한 남포동은 예전과 사뭇다른 인상이었다.

노점상이 백백했던 극장가는 빨강, 초록의 보도블럭 위에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 가을햇살을 가려줄 파라솔 등으로 거리가 변해있어, 이것은 마치 과거에서 현재 장면으로 급작스레 바뀌는 영화감기도 했다. 또, INFORMATION에서 무료로 배부된 영화시간표를 하나씩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득찬 거리는 무척 활기를 띠고 있었다.

아들들과 함께 왔다는 열렬선(주부·43세)씨는 "문화행사가 부족했던 부산에서 이런 큰 행사가 열려 너무 좋다"며 흐뭇해 하면서, 한편으로 ENDING자막도 보이지않고 자리를 뜨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국제적 행사이니만큼 그에따른 관객의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염세의 말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진된 영화들로 미루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가히 적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시민들의 관심도와 비례해 현장에서 바쁘게 활동하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 이들은 복장을 갖춰입고 한손에는 무전기과 한손에는 일정표를 들고 진행에 여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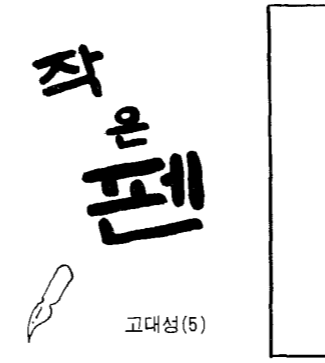
자원봉사자의 수는 3백20여명인데 "이 인원으로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하면서도 불평의 기색없이 하는 일에 꽤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수영관과 남포동 일대를 둘러보고, 마침 시간이 맞아 떨어져 '감독과의 대화'를 방청할 수 있었다.

감독과의 대화는 영화제에서 선보인 영화중 상영을 끝내고 배우, 관객, 감독이 함께 영화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날 부산극장 2관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박정일 감독과 배우 흥행인 군이 참석했다. 워낙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터라 그리 쉽게 말문이 터지지는 못했다.

토론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40대 중반의 남자관객이 "젊은 나이의 감독으로서 시대상황을 잘 표



고대성(5)

매이리

한국인의 멋

▲때론 '무량수전 배틀왕국'에 기대서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고

유의 아름다운 문화를 감상해보고 싶을 때가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 배틀왕국 기대서서 대자연과 조화시킬 줄 아는 깊은 안목을 지닌 그 옛날 의상대사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신라로 넘어와, 문무대왕의 정기를 받으며 꽃피어 서있는 같은사람의 자태에 빠져드는 감흥을 느끼며 근사

한적인 신명력이나 거드름없는, 양리조상이 남긴 문화유산은, ▲ 그렇게 우리네 조상들은 대자연과 조화시킬 줄 아는 한국인의 멋을 지닌 진정한 한국인이었다. 지금의 한국인은 어떠한 멋을 지니고 있거나, 무미건조하다. 여유가 없다. 삶에 조물리고 생활에 지쳐 허탈해달라지고만 있다. 그저 언론에 기대어 언론이 그러던 것

이 옮겨다지면서, ▲ 지난 연세대 사례, 한의대사례 등등 현재 한국 사회의 기류는 그리 밝은하지 못하다. 그런 기류에 편승해 정부는 국가가 하는 일에 참견하거나, 비관하는 세력은 모조리 없애야 한다고 아담법석이다. 한총련 관련자는 구속수배하고, 민족의학을 고수하고자하는 한의대생에게는 집단체적의 위기까지 몰아가고 있다. 잡화, 결사, 의사표현의 자

유를 억누르며까지, 이러한 때 북한 무장간첩침투 사건은 정부와 여당의 공안정국 기세에 일격을 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나라 안은 온통 간첩잡기, 탈영미 잡기로 뒤숭숭해지지만 하고, 대선을 겨냥한 분위기 조성은 완벽을 기하고 있고, 이 여세는 한 나라의 경제위기 파장으로부터 번지게 하고 있다. ▲휘영청 대보름 달이 떠오르고 있다. 민족대이동이라 더더욱 복잡하고 곤혹스럽기만한 한가위가 아니라, 이 날 만큼은 우리 선조의 얼을 기리며 그네들의 넉넉함을 되새겨 보자. 대자연의 조화를 볼 줄 아는 우리 선조들의 그것을, 그저 숨죽이며 지내던 마음을 벗어던지고 좁은 넉넉하게, 또한 근시안적이지 않은 그들의 유산을 음미하며. (선)

Advertisement for the 2nd Taepyeong Women's Thesis Competition. It features a large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woman on the left. The text in the center reads '그녀의 외침으로 세계가 깨어났다' (The world woke up because of her cry). Below this, it lists the competition details: '제2회 켈쥘렛 선발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The text describes the competition's purpose, eligibility (female students from various universities), and submission details. It includes a list of priz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At the bottom right, there is a logo for '태평양' (Taepyeong) and a small graphic of a globe.